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호 [루계 제25167호] 주제 105 (2016)년 1월 24일 (일요일)

사설

상원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으로 대고조진군의 승전포성을 힘있게 울리자

주체조선의 수소련폭음으로 장폐한 서막이 열린 올해의 뿐만 아니라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서있다. 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정식하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끌임없이 이어지게 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상원로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로동계급이 생산적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로동계급이 자랑한 성과는 당과 수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로동계급의 혁명적기질의 뚜렷한 파시이다.

글지의 세멘트생산기지에서 장조된 대비약력혁신과 상원의로동계급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백두령장의 명으로써 더욱 세차게 일으켜온 오늘의 양강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혁명을 보위하고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한 로력적신물을 마련함으로써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다시한 번 낭김없이 떨쳐나갈것을 바라시는 체세워인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막弛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전문, 이것은 상원의로동계급이 아닌 우리의 전체로동계급이 받았던 최상의 믿음이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난 조선로동계급의 성스러운 사명감을 배부해주는 비약의 원동력이다.

상원의로동계급처럼 백두의 불은 혁명정신과 자강제일주의를 펼승의 무기로 끌어쥐고 당시 제7차대회를 맞아온 수령의 명으로써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절충하는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당시의 구상과 결집을 앞장에서 받드는 것은 우리로동계급의 신성한 의무이고 혁명적본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간의 많아들답게 당시의 사상과 위업을 떠나 앞장에서 밟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주거려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일찌감치 당을 따르고 용위하고 당시의 구상과 결집을 끌어들이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주거려고나야 합니다.』

우리로동계급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중요대상건설에 펼

도발길을 끌어이며 경제건설과 해무역건설의 병진로선을 떠받드는 역할이 우리로동계급이 이어지는 당창건 70돐에 정식하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끌임없이 이어지게 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상원로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로동계급이 생산적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충족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이 안겨 준 담벼락 배짱으로 울려 흔진 군길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과 영웅적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수령의 존활으로 불리우는 조선로동계급이 어떤 사람들이며 수령의 유훈을 어떻게 훌륭히 훈련해나가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당당에 다진 맹세를 막아둔수록 더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 혁명을 보위하고 당시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의 정의의 위엄, 우리의 힘찬 전진을 펼쳐서적으로 가로막으려는 미제의 정체로동계급의 철석의 의지이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의 철석의 의지이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며 천리미대하고 조, 새로운 혁명적고조로 당중앙을 향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끌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면한 증시로 된다.

우리로동계급은 전후 어려운 나날에 나 임혹한 고난의 시기에 나 오직 당면을 밟고 따르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 생활을 빨리 높이는 것입니다.》 김정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 새기신 숭고한 자욱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천만이 일떠섰다.
또 열마디 위대한 변혁들과 빛나는 승리들이 희망찬 울اء를 금문자로 아로새길것인가.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새해 첫 진군길에서부터 힘차게 내짚은 천만의 밤길을 통해 더욱 배배해 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이 커다란 진폭으로 메아리쳐온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가기준에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정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져기를 축원하면서 천만군의 무게를 담아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깊은 음성이 온 나라에 울려퍼져던 그때 인민들은 무한한 결정속에 친근하신 그의 영상을 우러르지 않았던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나 맞이하는 새해 이же 만우리 인민처럼 평도자의 정념 친족복을 받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다.

우리 원수님께서 이 땅에 애아오신 및나는 성과들에 인민의 행복도, 아름다운 꽂도, 인민의 누리에 꽂 만복도 있음을 이 나라의 천민이들들은 불러는 실장들에 드겁게 세겨본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받아지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있다.

경제 강국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받아지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있다.

우리 경제강국건설목표는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과업들을 명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마다 새길수록 우리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려온다.

지난해 8월 모내는 기계와 토양판

기계를 비롯하여 113종에 510

점의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이 전시되

어있는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종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기쁨으로 보고 또 보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주자격방향인 농업전선의 둘과구를

열어제끼자면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이 많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농촌경기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근로자를 어렵고 힘든 토종에서 해방시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냄원이었다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절실히 하신 이야기로 군人们的의 심금을 열거나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농기계생산에서도 주제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쁨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지방별 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야 한다고

하나니 그 방도까지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농기계

과 부속품생산기지들은 사회주의 수

호전의 제1제2제 1선창호인 농업

전선의 명기창이되는 크나큰 믿음도

제작주시었다. 농기계생산자들이 쌓우는 고지에 더 많은 탄악을 보내주자는 구호를 들고 맨손으로 피대를

둘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자리로

단식발전소, 파학기술전당과 미래파

학자거리, 장천남색전문협동농장…

평범한 나날만이 아니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들의 무모한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실로 업

중한 경제가 조성되었던 지난해 8월

을 틀어켜보자. 그때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에서는 장내를 격통시키며 라선시즌

물파피해 복구대책문제가 토의되었다.

나라의 최고증대사인 국방사업과 관

련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그 중

요한 자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라선시피 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장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힘으로 간직하고

사는 인민군장병들의 투쟁에 의해

여 조국의 북부 리선령에 사회주의의

경마을이 울翕하게 벌어지고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계적인 사랑과

행복을 떠나는 원수님의 자작은 자유

를 끌어내리고는 당시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험난한 천연기념

을 끌어내리고는 당시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험난한 천연기념

을 끌어내리고는 당시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끌어놓은 천

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력으로 끝없이 이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경마을을 험난하게 벌어주었다.

인민생활향

사랑의 보금자리에 넘치는 보답의 맹세, 비약의 열의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기

지난 1월 14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에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때로부터 2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는 이날을 맞으며 과학연구성과의 알찬 열매들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을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온정과학지구로 들어서는 우리의 미리속에서는 어느 연구소에서부터 취재가 시작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떠올랐다.

(1 1 1 호제작소, 전기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국가과학원의 일군은 우리를 연구소에서부터 취재가 시작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떠올랐다.

(1 1 1 호제작소, 전기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우리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더욱 훌륭한 연구성과의 미결은 행복의 보금자리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로 보내왔다.

이렇게 되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대한 취재길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것을 다 얻겨주고 싶은것이 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들어서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와 뜨거운 온정속에 솟아오른 24개 호동의 다층살림집들이며 학교, 병원, 타운소, 유치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과 공원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날 2층으로 올라가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문으

로 학교운동장을 바라보시었습니. 운동장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 해전 10월 새로 입주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셨던 그 날 제일먼저 과학자자녀들이 공부하게 될 은정구역 위성소학교 부터 찾으셨습니다.»

간접적 것은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학교정문을 지나 중앙현관에 들어서니 우리들의 눈앞에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화관이 정중히 안겨왔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소년들을 위하여는 아까울것이 없다시피 이르는 꽃마다 학생소년궁전 세워주시고 온갖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오늘도 영원히 학생소년들을 함께 계시며 우리 후대들의 밝은 앞길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우리는 삶의 인사를 드리었다.

벽면을 비롯하여 어느 곳을 보아도 흥을 품은 대로 끄려진 학교내부는 하나의 궁전과도 같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벽에 옷걸이들이 붙여놓고 최근에는 물 출렁이는 실내수영장을 지나 우리는 2층으로 향하였다.

부교장 유해심동무는 바로 이 자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고 감격에 격워 말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에게 위성국과 위성종합전료소

진료소

로 취재길을 이어나갔다.

판매원 류현숙동무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그족들이 이곳 악국으로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아직은 다 모르고 받아

는 사랑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악국에는 삼비 악은 물론 모든 구급약들의 정상과 장대책이 청저히 세워져 있으며

높이도 가능해주시며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자면 거기에 자연친리를 심는것보다 인공잔디를 깔아주는것이 더 좋다고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제육훈련장에 가시어서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농구대의 높이도 가능해주시며 학생들을 금지해주기 아니리지 저녁체육을 걸

비한 나라의 풍물인 인체를

기워야 한다고 드겁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악들에도, 의료설비들마다에도 우리

감하고 푸르싱상하게 차관 설립

화를 비롯한 여러 품종의 낙제

들과 사방에 파란과물들 돌아나는

온실안으로 이끌었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도입된 온실안에는 따스한 기운이

되면서 햇살을

나는 미래원은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뿐이 아니었다. 배구장과

정구장, 로스케트장을 비롯한

여러 체육시설들이 있어 위성파

학자주택지구건설장을 찾으시

며 사랑의 금방식, 행복의 보금

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온실안으로 이끌었다.

해마다 그려졌듯이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찾으시는 원수님의

이제 머지 않아 여기에서 차관 낙제들이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을 더욱

운용하게 해주게 된다고 생각하

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홍그려

워졌다.

그 이후에는 체육장을 찾으시

며 운동장을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악정은 온 민족의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최악의 위기는 누가 돌아왔는가

최근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국도에 달하고 사회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면서 민심의 분노는 도처에서 폭발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는 일본군성노에 범죄와 관련한 남조선과 일본당국의 협상 결과와 관련하여 일본의 피어법죄를 목인해 주 보수당국의 국악한 친일파 국행 위를 단죄 규탄하면서 군유저인 「합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힘쓰고 있다. 한편 남조선으로 총은 로동자들의 의사로 외면하고 반인민적 악법인 「대국민 담화」법을 떨어놓고 저들의 친일역적 행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이니 뛰어나고 변명하면서 벤츠스럽게 「리허」를 요구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한편 미 국무부 정부장관이라는 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저자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해결을 알립니다」라고 실로 하였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입김에 따라 남조선 당국은 일본의 피어죄악을 묵인해 주고 백년 속국에게 재침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불개 베진지를 저질렀다. 다른 문제도 있다. 그것은 남조선집권자가 그려온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불안정 사회」, 「무책임 사회」, 「사고 사회」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이 말에는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일본인들의 생명과 안전은 인증도 두지 않고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반역파들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분노가 짙게 서리여 있다.

그런가하면 사회의 불평등과 왕국화를 허용해 주고 근로인민들의 생활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승자독재」, 「독차사회」, 「하류사회」, 「노예사회」, 「결혼」, 해산, 취업을 포기하고 못해 암달한 현실을 반영한 「무력사회」, 「상실사회」 등 보수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을

이다. 남조선집권자는 그 어떤 오그랑수를 써도 저들의 반역정책과 반인민적 양동이 물어온 총체적 위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남조선사회의 현 위기는 외세의 온에 명줄을 걸고 외세에게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강고 끌어내는 사상 유례 없이 사태에 국정위에 의해 초래된 원인으로 결말이다. 남조선에서 정치를 좌우하는 전제 실권자는 미국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요란스럽게 광고하는 그 무슨 「경제 활성화」, 「경제 개혁」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태생에 배인 반동공세라고 규탄해 나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가 여기저기에 고를 내밀고 경제 문제에 대한 해설 수설을 때마다 인터넷에는 「입으로만 경제 활성화를 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조선은 다른 사람의 배 국행을 상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 협상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입김에 따라 남조선 당국은 일본의 피어죄악을 묵인해 주고 백년 속국에게 재침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불개 베진지를 저질렀다.

그들은 그려온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해결을 알립니다」라고 실로 하였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입김에 따라 남조선 당국은 일본의 피어죄악을 묵인해 주고 백년 속국에게 재침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불개 베진지를 저질렀다.

그들은 그려온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해결을 알립니다」라고 실로 하였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사회의 저친한 오늘의 총체적 위기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침해하면서 오만과 독신으로 반역정책을 강행 추진하는 정권자와 보수당에 의해 벗어진 것이라는 것을 립증해 주고 있다.

알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기도 한다. 그들은 그려온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해결을 알립니다」라고 실로 하였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 「정권」의 불안정성과 식민지 체제의 허약성이 있는 것이다. 외세를 하내비처럼 섬기며 그의 발바닥을 훑는 자들하고 인민을 친시하지 않는 자는 없다.

오늘 남조선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재난이다. 이것 역시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인 악정이 빚어낸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남조선 각계는 보수당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자본의 위기를 로동자와 서민에게 전해롭게 만드는 신체적인 반도통공세」라고 규탄해 나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가 여기저기에 고를 내밀고 경제 문제에 대한 해설 수설을 때마다 인터넷에는 「입으로만 경제 활성화를 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조선은 다른 사람의 배 국행을 상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남조선은 「정권」은 미국의 식민지지배 체제에 암에 걸려 그에 굽증할 의무밖에 없는 한갓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일본군성노에 문제에 대해서 저자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해결을 알립니다」라고 실로 하였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입김에 따라 남조선 당국은 일본의 피어죄악을 묵인해 주고 백년 속국에게 재침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불개 베진지를 저질렀다.

그들은 그려온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해결을 알립니다」라고 실로 하였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사회의 저친한 오늘의 총체적 위기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침해하면서 오만과 독신으로 반역정책을 강행 추진하는 정권자와 보수당에 의해 벗어진 것이라는 것을 립증해 주고 있다.

알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기도 한다. 그들은 그려온 일본군성노에 문제의 「해결을 알립니다」라고 실로 하였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 각계는 보수당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자본의 위기를 로동자와 서민에게 전해롭게 만드는 신체적인 반도통공세」라고 규탄해 나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가 여기저기에 고를 내밀고 경제 문제에 대한 해설 수설을 때마다 인터넷에는 「입으로만 경제 활성화를 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조선은 다른 사람의 배 국행을 상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 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자

기의 존재를 유지 할 수 없는 바로 여기

에 남조선의 목소리가 그 어디서나 터져 나오고 있다. 한층도 놓이는 세월들의 허리를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동길을 마구 벗겨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벌려놓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은 수요집회에 이미 쓴맛을 불대로 본 사람들은 그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남조선으로 대한 망조가 그 결과에 대해 제 2의 제국적인 남조선을 「정권」이라고 놀라워하면서 분위기를 티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세를 등에